

평생의 꿈이 실현되다

뮤지션 성공 체험담 - 바비 잔켈 (Bobby Zankel) 이야기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기금의 원조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는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기에 아무런 자신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 첫 학회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제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요."였습니다.

그 당시의 제 상황을 요약하자면, 음악 뿐 아니라 다른 무엇 하나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모양새로 흐지부지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작곡이나 편곡 기술도 습득하지 못한 채로 다니던 음악 학교를 그만두었고, 5년간의 약물 중독으로 심신이 약해져 있었으며, 제 부모님들이나 전처와의 관계가 엉망으로 꼬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불도수행에 입신을 권하는 분들에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며 잘난 체 했던 것입니다.

혼신을 다한 노력으로써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음악을 창조해내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었던 저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제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예술인들을 홀대하는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제 생명이 정화되는 것이 느껴졌고, 행복감과 환희가 내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때 제가 기원했던 여러 가지의 목표 중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그것은 뉴욕에 있는 수많은 젊은 예술인들의 공통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섹스폰을 연습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렸고, 자신의 밴드에서 일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의 밴드는 정기적인 공연 무대가 있는 전문 음악인 그룹이었으므로, 제가 기원했던 첫 번째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이어서 유명한 재즈 뮤지션인 세실 테일러의 무대에서 솔로리스트로 연주할 기회가 생겼고, 제목을 부르기 시작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제가 존경하는 음악인들과 함께 카네기 홀의 무대에 서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살고 있던 원룸에서 이사도 하게 되었는데, 집 안에 피아노도 있고 창 밖에는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방이 5개나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때부터 난생 처음으로 작곡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 음악들을 함께 연주해 줄 재능 있는 음악인들과 조우하여 직접 공연 무대들을 조직하게 되었

습니다. 제목을 부르면 새로운 곡에 대한 구상들도 샘솟듯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목을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불법(佛法)에 대해 말을 꺼내거나 학회 활동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힘이 들었으며, 제 자만심과 불확신 때문에 다른 회원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라델피아 SGI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고, 브래스 밴드 활동과 좌담회, 가정 방문, 회관 내부수리 공사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자원하면서 매일같이 조직 활동의 최전방에 뛰어들었습니다.

타인들에게 정법을 소개하고 다른 회원들을 격려하는 동안에 제 생명 속에서 환희와 확신, 진지한 사명감이 일깨워지기 시작했고, 이 험난한 현실 사회에서 음악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늘 느껴오던 불안감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음악적인 경력에 다양한 변화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톤 색소폰이 거의 공짜로 생겼고, 라틴 밴드와 대규모 밴드들, 그리고 리듬 앤드 블루스 보컬 그룹에서 연주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독자적인 작곡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창작곡들로 가득한 노트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음악 장르인 모던 재즈를 연주하는 음악인들이 음악계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유명 음악인들과 함께 공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에 어울릴 수 있는 유연성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1977년 2월에 저는 지구장으로 임명되는 동시에 지부 청년부장의 역직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회원들을 결속시키고 제목을 가장 풍성하게 부르며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예술성의 측면에서 정제된 지점에 다다른 느낌이었기에 "음악계의 거장"이 되려는 목표를 놓고 매일 열심히 기원했더니, 존 콜트레인의 스승인 데니스 샌돌에게서 1978년부터 고급 수준의 작곡기법과 즉흥연주기법을 사사 받는 5년간의 수학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여러 해 동안 학회 활동에서 쌓아 올린 수련 덕분에 그 긴 수학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 만큼 그는 까다로운 스승이었지만, 덕분에 제 작곡과 편곡 기술은 놀라울 만큼 성장하여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유럽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순회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음악인이 되려던 오랜 꿈이 1981년에 막상 눈앞의 현실로 가능해진 순간에서, 진실로 행복해지는 길은 오로지 성실한 불도 수행에 있음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생명 속에 내재한, 반드시 극복해내야 하는 문제점들과 약점들을 직시하게 됨으로써 더욱 성실한 불도수행을 통해 꿈을 실현하리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을 난생 처음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맡은 지구는 1년 이내에 필라델피아에서 최고의 지구가 되었으며, 2년 후에는 두 개의 지구로 나뉘어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직업적인 경력도 그 기간에 꽃을 피우게 되어서, 제가 조직한 12명으로 구성된 밴드를 이끌고 제 창작곡들을 연주하게 되었고, 행크 모블리, 지미 메리트, 에드가 베이트맨 등의 베테랑 음악인들과 함께 공연도 함으로써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최고의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트로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술인으로서의 경력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무대가 아닌 길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몇 주 동안 밥 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미래에 이르는 길은 까마득해 보였지만, 저는 광선유포를 위한 학회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과, 극소수의 성공적인 전문 예술인의 대열에 올라서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1984년에 이사한 집에서는 제 침실 겸 거실이었던 공간을 아침. 점심. 저녁에 있는 학회의 모임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간부님들에게서 광포 운동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동시에 인생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지도를 받은 얼마 후부터, 성공적인 직업 경력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 펜실베이니아 예술협회로부터 재즈발레 작품인 "생명의 순환"을 창조하기 위한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고, 그 완성된 작품의 공연이 USA Today 신문사의 데빈 레오나드를 비롯한 저명한 재즈 잡지들로부터 열띤 호평을 받았으며, 그 작품을 담당하는 동안에 현재의 아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펜실베이니아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중요한 상을 수상함으로써 두 곳의 주립교도소들에서도 제게 일을 맡겼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진 올해의 학회 총회인 뉴욕 컨벤션에서 제 아내는 댄스 공연을 했고 저는 장년부 밴드와 오케스트라에서 공연했는데,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인 7월에 음악/댄스 작품들을 위한 합작 기금으로 1만불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곡이 제 창작곡들로 구성된 첫 앨범도 현재 제작 중이지만, 저는 어본존님의 위대한 불력(佛力)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책임감 있는 지부장으로서, 말은 바 과제들에 생명을 바쳐 도전하면서 최후까지 SGI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비 젠크는 미국 음악계에서 색소폰 연주자로서 명성을 쌓고 있으며 창작곡들이 실린 앨범을 현재까지 5 장 발표한 전문 음악인입니다.

이 체험담은 1973년에 불도수행에 입신한 그가 1987년 Seikyo Times에 기고한 글로서, 광선유포를 향한 사명감의 자각과 더불어 힘겨운 투쟁을 지속함으로써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 당시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 그는 미국 음악계에 당당히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끝>

* 자료링크(인터뷰)

https://youtu.be/ZJQ_F46Q7aA